

고려대학교
1984. 9. 22. 3월 3주

화해와 일치

총무 김 소 영

한국교회의 100년 역사가운데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많은 것을 찾을수 있다. 그 단점 중에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것은 교회의 분열이다. 해방당시 한국내 교파수는 겨우 3, 4개에 불과 하던 것이 지금은 장로교만도 49개이며 전체교파수는 89개로 이것은 최근의 통계이다 그리고 또 단점중의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할수 있다. 예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잘 순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이해 하고 하나가 되라” 즉 “화해와 일치”에 대한 말씀은 순종하지 못한 점이다.

감사한것은 금번 선교 100주년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3년전 NCC의 산파역할로 기독교 100주년 협의회가 조직되어 신학과 이념이 서로 다른 20개교단과 기독교기관 25개가 힘을 합하여 100주년기념 선교대회를 성대하고, 질서있게 마치게 된 일이다. 이제 교파가 하나로 합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은 같이 할수 있을 것이다.

또 특별히 감사한것은 전두환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9월 6일 방일) NCC가 발의하여 국내 20개 교단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것은 한국교회 역사가운데 처음있는 일인줄 안다. 그 성명서 내용은 ① 일본 황제(일황)는 신으로 자처하여 한국교회로 하여금 숭배케 한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② 일본제국주의 국가는 한국민족을 강제징집, 징용, 정신대, 독립투사의 학살등의 죄악을 한국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③ 역사의 희생자로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인에 대해 지문날인등 갖가지 억압과 차별대우에 대해 철폐, 시정하고 사죄 해야 한다. 위와같은 사죄와 시정이 없는 이상 전두환대통령의 방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선지자적 사명과 파수군의 역할을 일치해서 감당하여야겠다.

“화해와 일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시대에 주신 특별한 과제인줄 안다.

1) 화해 화해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죄”임을 성서는 언급하고 있다. 죄를 지은자는 하나님과 화해 하기 위해 “속죄제물”(레4:1-5)을 바쳤다. 죄로 관계가 파괴되었으니 화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이라고 신약성서는 언급하고 있다. 신약성서의 네가지 성구에서 화해를 찾아 본다. ① 롬5:8-11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의 화해 ② 골1:20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이 화평케 되었다. ③ 고후 5:14-21 그리스도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화해하는 직책을 감당한다. ④ 엡2:12-17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십자가로 화해 되었다는 것.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으니 주의 명령대로 갈라지고 깨어진 세계속에 화해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2) 일치 1983년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WCC 제6차총회의 촛점이 평화문제였다. “No Peace Without Justice”(정의없이 평화없다)라는 말이 유행되고 부각되었다. 나는 이말을 바꾸어 “No Unity Without Reconciliation”(화해없이 일치 없다)라고 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화해가 없이 일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는 해방후 얼마나 싸웠는가? “예수”와 “그리스도”가 한국에서 싸운다는 소문이 외국에서 돌았다.

자파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무조건 “용공”이니 “신신학”이니 하면서 공격하여 상처를 받았고 예배당 안에서 오물세례까지 받기도 했다. 모두들 마음속에 응어리가 맺쳐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싸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참회한 후 일치를 부르짖어야 한다. 교파와 교파 교회와 교회, 목사와 목사, 장로와 장로, 교인과 교인, 모두가 싸운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일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스코틀랜드에서는 1800년까지 18개 장로교회가 있었으나 1929년에 하나의 장로교회로 연합했고, 캐나다에서는 1925년에 장로교, 감리교, 조합교회가 연합을 했으며, 1929년에는 필리핀에서 장로교, 조합교회, 형제교회가 연합하고 1983년 미국장로교회는 남북으로 갈라진지 123년만에 연합하게 되었다.

100년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서로가 화해한후 교파가 연합을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만일에 앞서 말한대로 교파가 연합하지 못하면 “연합해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특집 / 교회여성운동의 방향

- ☐...세계 유례없이 급성장한 한국교회와 오늘의 우리 사회내부에는 ...☐
- ☐...감추어진 여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 ☐...수출산업의 역군이 된 저임금의 여성 근로자, 오로지 먹고 살기위해 ...☐
- ☐...허덕여야하는 도시 빈민여성, 편견과 풍습에 얽매어서 일속에 파묻혀 ...☐
- ☐...살아야 하는 농촌 여성들☐
-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하면서 한국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
- ☐...말씀을 재발견하도록 노력하면서 올바른 교회여성운동 방향을 모색 ...☐
- ☐...해야 할 때가 온것 같다.〈편집자주〉...☐

한국교회의 새세기와 교회여성운동

박 영숙 (NCC여성위원장)

나는 이 글에서 평신도의 특전(?)을 누려 보려고 한다. Lay라고 하는 평신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사제를 포함한 모든 신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평”자를 띄어야 한다고 하는이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평”신도의 한 사람임을 강조한다. Lay하면 비전문적인, 또는 문외한을 말하고 있어 어떤 미숙하고 직감적인 생각을 편다고 해도 너그름으로만 아드려 지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선교 100주년을 그리고 연합운동의 60주년을 금년에 맞이했다. 한세기와 회개를 맞이 한다고 하는것의 의미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민족사에 끼친 헌신과 공헌에서 찾을 수도 있겠으나 시간의 매듭이란 지난날을 마무리 짓고 새출발을 시도할 수 있어서 더욱 큰 의의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한국 교회는 중요한 시점으로 자찬하는 축제 분위기에 휘말릴수만은 없는것 같다.

새로운 시작이란 지금까지의 과정과 낡은것의 악순환을 정지 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이라고 한다. 이것은 얼키고 설킨 과거에서 풀려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먼저 창조질서의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사이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로 잡고 시작하는것을 새출발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새출발이란 지난날의

한맺힌 자욱을 그대로 덮어 두거나 외면하여 가능한것이 아니란다 회개가 가던 길을 멈추고 변혁하는 일이라면 새출발이 곧 회개 일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세기의 문턱에서 회개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은 당연하다. 한국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가장 부끄러운 발자취로서 교회의 분열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민족이 겪은 오랜 수난사를 통해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것, 받은 축복을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누지 않고 교회의 자기확장에만 급급한것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올바른 증거와 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익사회의 논리를 교회안에 까지 판을 치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흐리게 하고 있는것을 회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의 교회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사회의 문제꺼리로 대두되고 있음을 뉘우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여야할 것으로 지적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예로서 평신도의 눈에 비친 몇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맘모스주의 지향의 교회규모의 거대화를 들수있겠다. 교회간의 경쟁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재벌들의 초대형의 빌딩과 경쟁이라도 하듯 어마 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교회는 크게 세울수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것으로 간주하여 찬양의 소리를 높인다. 능력이 미치는 한 자기확대를 시도하는 교회를 두고 사회에서는 기업체와 다른것이 무엇이나고 물어온다. 양적으로 늘어나는 교인을 감당하기 위해 2부제 예배도 부족해서 3, 4부제 예배를 보아야 하는 형편에서 큰교회에 대한 요청은 불가피하다고 할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간의 부익부, 또는 빈익빈의 현상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공동체원간의 몸의 원인인 산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는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교회의 민주운영에도 경화증을 일으키게 한다. 민족의 복음화는 한국교회의 중요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회의 거대화하고는 상반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교회가 너무 많다고 했다는데 각교파의 몇집 건너 교회탑을 세우는 난맥상은 한번쯤 짚고 지나야 할 문제인것 같다.

둘째로 오늘의 세계는 개국가주의, 개집단주의, 개가족주의 또는 개인의 자기 중심주의는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들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일치운동과 연합운동을 시작한지 60돐을 맞이하기 까지의 긴 연륜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상태에 이르기에는 아직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치운동의 기본정신인 너의 일이 나의일의 연장이며 너의 손이 나의 손의 연장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아닐것이다. 이것을 못보게 하는 그 무엇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극도의 개교회 또는 개교단주의가 아닌가. 교회가 자기확장과 교회헌금을 자체소비에 바닥을 내고있는한 교회의 손은 밖을 향해 뻗칠 여유는 생겨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계속에서의 존재이유에 대한 힐책을 받게 된다. 여기에 덧붙여서 교회간의 격차도 문제된다. 어떤 교회여성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도서지구의 일개월간의 교회유지비가 도시교회의 일주의 꽃꽂이 대금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나마 그곳 교회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궁궁한다는 것이다. 또하나의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는 교회선교의 방향이나 양상이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연합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 사회복지단체 운영에 있어 한사람의 거액의 회사를 거부하고 다수의 소액회사에 의존하고 있는것은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약점을 간파했기 때문이리라.

세째로 한국교회의 인간차별과 비민주성을 들고 싶다. 교회안에서의 여성차별의 문제제기는 해묵은 것이다. 교회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사제와 평신도, 장년과 노인 그리고 청소년, 장애자와 정상인, 유능자와 무능자사이드의 인간차별이 일반사회에 못지 않는다는데 문제가있

다. 하나의 작은 예로서 장학생선발 기준에서도 쉽게 지적할수 있다. 우수하고 장래성이 있는 학생에게 주는 관습에서 말이다. 산업사회의 능률위주의 인간판단의 패습이 교회에서도 작용 하는 것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양자를 선택하는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는 어린이를 찾는다고 하는 일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것 같다. 교회의 비민주성은 어떠한가? 기득권자의 앞에서는 모두가 주체자로서가 아니라 대상자로 머물게 한다. 피교육자, 피보호자, 피선교자의 자리에 묶여두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교회의 결의기구의 구성원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한국교회는 교회구성원의다수인 여신도를 비롯한 남신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평신도의 소리를 들을 귀를 가리고 있다. 평신도의 설자리는 오로지 순종하고 봉사하며 피교육자와 피선교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때 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을 교회안에 가두워 두었던 시대에나 가능했고 통했던 유물이다. “하나님의 선교” 시대인 오늘의 평신도들을 피선교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선교자로 만들어야 교회는 오늘의 교회의 사명을 다할수 있을것이다.

넷째로 어떠한 이유에서거나 교회시설이 예배목적과 자기교인의 제한된 용도에 한해서 개방되고 있는 것은 자원활용면에서도 낭비임을 고려하여야 할것 같다. 교회시설이 하나님의 선교목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있을수 없겠으나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해의 차이는 문제되는것 같다. 지역사회 개발에도 특히 최근에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그 심각성이 들어난 청소년문제 해결의 한모퉁이를 담당하는 일로 오늘의 교회의 선교과제의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교회청소년에게들 마저 그들의 광장으로서 교회시설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교회는 앞서 예시한 낡은 시대의 유물들의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새세기를 맞이할수는 없다 100주년의 시간의 매듭이 이의 제동의 구실을 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교회역사의 잘못된에 주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조한 책임은 부인할수 없으며 이것이 교회여성의 회개의 초점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 즉 남녀, 노소, 그리고 장애자와 정상인들에게 똑같이 부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국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는 교회여성들이 하나님앞과, 역사앞과, 민족앞에 바로 섰다면 이런 오류를 이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에게 빠져있던 이 박혀있는 길드려진 노예근성이 우리를 눈먼자, 눌린

이웃을 위한 대화적인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의 태도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결여된 것은 사랑과 화해의 태도이다. 사랑과 화해의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집 / 교회여성운동의 방향

사랑과 화해의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 병어리, 귀먹어리, 팔다리가 없는자로 남게 한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해 진다고 한 말을 기억한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체,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속에 계시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며 우리는 그렇게 한 책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여성의 회개의 시작은 낡은 옷을 먼저 벗어 던지는 일이다. 일신의 안일함, 무조건적의 노예적복종 무비판성, 일상에 사로잡힘, 통념에 매임, 나밖에 또는 내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리고 이웃의 재정비이다. 신명기 30 15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을 택하는 운동을 교회여성은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생명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즉 생명의 원리를 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또한 바울이 말한 한몸으로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생명이며 생명에는 형평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연을 자원으로 간주하고 정복대상으로 여김으로 생명의 균형을 깨는 잘못된 오늘의 발전문제를 비롯해서 힘이 제일이라는 강자의 논리, 권력과 물질의 편제로 인한 기독교인의 권리남용, 상승일로에 있는 무력경쟁으로 인한 세계평화의 위기, 자원의 한계를 망각한 무분수의 소비풍조, 나만이라는 이기주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폐쇄적인 무관심 등은 오늘의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추세를 꺾기 위한 교회여성의 운동이 생명운동이다. 교회여성은 역사가 생긴 이래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해온 하나님나라 건설로서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생명운동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민족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문제는 민족통일과 직결되는 조국의 평화 통일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 생명운동은 깨진 관계를 바로잡고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정상상태로 되돌리는 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의 위협의 요인이 제거되고 사회의 모든 관계 노동자와 기업주, 정치인과 국민, 부유층과 서민층 남자와 여자, 장애자와 정상인, 늙은이와 젊은이, 교회와 교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존재할 때의 교회라고 한다면 흐터진 교회, 파견된 교회로 세상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조화와 균형이 잡힌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약한자의 편에 서며 처진 쪽을 치켜올리는 운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민중운동은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어떤 단체에서는 최저생활운동, 기독교포기운동, 자연보호운동, 전쟁예방운동 등의 형태로써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던진 작은 돌의 파문은 점차적으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 여성운동의 행동반경이 전 세계 여성운동과 합류할 수 있을 때까지 퍼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평신도운동으로서의 교회여성운동 강화이다. 평신도운동이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모든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교회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선교하신다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의거 세상에 보냄을 받아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려는 평신도들의 모임은 교회에서 파견된 교회로 세상에 나아가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 존재할 때의 교회라고 한다면 파견된 교회 또는 흐터진 교회로서의 평신도의 세상에서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것이며 평신도운동으로서의 교회여성운동의 선자리와 과제는 분명해 진다.

100년전 초기의 교회여성들은 여성의 인간화, 애국애족운동, 그리고 교회의 부흥운동으로서 오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되는 일에 어떤 면에서는 남신도들과 비교되지 않으리만큼의 현격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오늘의 교회여성의 움직임을 지휘수준에서 살펴보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인가 교회가 설립되는데 따라 하나의 부설기구로서 자연발생적인 출발을 한 그들의 활동은 가정의 주부의 역할의 연장으로서 교회내 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봉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자선적이며 교인간의 친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전위대인 평신도운동으로서의 교회여성운동은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무대는 역사이며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이 세상 역사속에 성육하시고 오늘도 역사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여성운동이 먼저하여야 할일은 역사관의 확립이라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속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의 선교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여성운동의 다음과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역군으로 동력화하는 일이다. 한국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여성이 성서를 바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파악을 분명히 하고 선교에 임할 때 한국교회는 새로워 지리라 믿는다.

특별히 평신도운동중에서도 교회여성운동의 중요성은 오늘의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힘의 원리, 정복의 원리, 이기는것이 진리라는 철학에서 출발된 남성적인 문화라면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리인 조화와 형평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여성적인 문화가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문화가 요청하는 가치가 오늘의 현실에서는 여성인간군에게서 보다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고유의 성품이 아니라 오랜동안의 지배, 착취, 놀림, 수난속에서 터득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지금까지 치욕으로 여기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억눌림과 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자기것으로 익혀온 소위 말하는 여성성, 곧 모성성이 바로 오늘의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가치라고 깨닫게 되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감싸며 굶은일을 말없이 해내며, 양보하며, 지며, 아끼며, 생명을 낳아 기르며 귀히 여기고 마침내는 생명을 내놓을수도 있는 것이 모성애이다 이것은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삶의 모습이다. 남은 문제는 내 혈육을 위해서 또는 내 교회를 위해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성에 발휘는 인간전체, 또는 세계전체를 위해서라고 할때 새로운 역사는 이룩되며 그것을 위해 교회여성이 나설때 평신도운동으로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역사현장을 소홀히 하고 역사를 벗어나려 하거나 역사에 무관심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보다 교회중심적이 되어서 모이는 교회에 비해 파견된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날로 강해지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를 교회안에 묶어 두려고 하고 연합운동은 평신도의 참여의 문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은 시점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여성차별의 문제 해결로 장로나 목사안수가 허락되었다고해서 가능한것이 아니라 평신도의 교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보다 넓게

개방될때 가능하다. 오늘의 평신도운동의 우선 과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일부터 저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다른 평신도운동체와 연합전선을 펴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에큐메니칼운동으로서의 교회여성운동의 확충이다. 에큐메니칼운동의 역사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 귀에도 생소하지 않게 들린다. 그러나 교회들 중에는 크게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것은 교단에 따라서는 거센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WCC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인류의 통합과 교회의 통일을 이룩하려는데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인지 모르겠다. 요한복음 17장의 “세상이 너희를,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는것은 너희들이 다 내안에서 하나가 되었을때”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때 에큐메니칼운동의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에큐메니칼운동의 상징에서 이해하듯이 “너와 내가 한배에 타고 있다”라고 이해할때 거부할 아무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된다. 교회여성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함께 사는 세계건설”이 바로 에큐메니칼운동인 것이다. 인류가 하나의 방향이나 목표를 위해서는 그 답을 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운동이 하려는 일일 것이다 한국교회가 고난의 역사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나누며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인간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개교회, 개교단, 개국가의 보호본능과 특히 약소민족이라는 통념에서 해방되는데서 새출발을 시도해야 할것이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볼때 자칫 연합운동에 있어서 자기교단의 주장이나 이익 실현에 혈안이 되거나 자리의 배분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가 하면 지체의 책임인 재정부담에는 등한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여성들은 지금 민족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드러내 보일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수있는 결단을 할것인가 하는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운동의 정신은 한국교회의 일치와 한국민족의 통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일치와 인류의 통일까지도 관심하는 바로서 국내에서의 일치된 운동전개에 이어 이 운동을 세계를 향해 외쳐야 할것이다

우리가 우리자신의 생활수준을 자율적으로 깎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역사의 대세를 꺾는다고 하는 일은 더욱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를 깎아내는 아픔이 따르는 과제라고 한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는 데서 우리는 결단을 할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과된 오늘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속의 여성문제

이 연 옥 (예장여전도회연합회 회장)

1 교회내의 남녀 평신도 관계

1) 긍정적인 면에서 - 남녀 평신도들의 관계는 대체로 화목하며 교회봉사에 있어서 협력적이라고 할수있다. 교회활동에서 남녀 평신도들의 역할이 상호 보충할 때만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교회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협조를 해주고 협력을 받는 일들이 많다. 봉사활동에 남선교회원들이 재정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으나 여선교회 회원들의 수고라는 보충을 받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제도상 남녀 평신도들은 격차(남녀 집사급을 말함)가 심하지 않고 무난하여 어느 기관에서나 일하는데 기인한 것이다 교회 여전도회는 남선교회보다 더 많은 일들을 잘 해나가는데 그 비결은 동지적(Partner ship)의식을 가지고 경쟁의식을 버리며 상호 협력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안다 평신도의 조직체는 펍 민주적이며 동지의식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교회내에서 봉사하는 기회에 평등의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것 같다.

2) 부정적인 면에서 - 긍정적인 면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한국교회 안에는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남자의 우월과 지배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하는 것이고 여성의 역할은 자녀생산으로 번창과 양육, 남자의 보필자로 표현되어 있고 고대 전통사회에 가부장 제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여 여성해방문제 즉 여성 인간화 문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많은 오류와 주장이 교회내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남녀 평신도들 가운데 여성자신이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남성우위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성은 낮추고 남성만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들면 교회내에서 행사를 치루고 정리하는 일을 여성들에게만 맡기고 남성들은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경우 등 또한 제직회 서기는 거의 남자만 시키고 여자는 없다 이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서

기는 문장력이나 필체에 있어서 여자중에도 있을법한 일이다 이런 면으로 보아 남성우위 풍토는 잔재하고 있다 이 문제는 교회제도상의 문제보다 우리의 의식 구조에 변화가 없이는 안된다 역시 민주화한 가정훈련이 시급하다.

2. 목회자와 여성

1) 목회협력자로서 교회여성

목회자들이 목회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자들이 많으면 교회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비협조적이면 교회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목회자들도 소명을 받을때 완전한 지도자가 아니라 계속 발전할 능력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그 능력을 개발시키는 일을 자신이 하지만 그 일을 도와드리는 협력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크다. 사랑의 배려 특히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현재 교회는 규모에 있어서 맘모스의 교회도 많고 교회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믿음과 덕으로 할뿐만 아니라 행정기술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교회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여성자원을 활용하는데 인색하다. 교회안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다양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다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성장에 여성들이 받은 은사를 최대한으로 선용하지 못하고 제한된 위치에서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다.

2) 여성자원 활용에 편협한 목회자

오늘의 교회가 있기에는 여성평신도들이 목회협력면에서나 교회성장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목회자에게 절대 순종과 교회봉사의 헌신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갈릴리 여성들을 방불케 한다. 매우 아름다운 관계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의식속에는 여성자원 동용에 과감하지 못할뿐더러 지도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전통문화의 유산인 남성우월사상이 아직 작용하고 있으므로 교회 민주화와 여성인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 민주주의가 실현됨이 요원하다는 말도 된다 문제는 나이 많은 목회자들 보다 젊은 세대의 교회지도자들 중에 많다는 점이다. 인권